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채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풀리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라운드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뉴스특보	0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 아카데미	1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S 생활뉴스 30 한국의맛
12	00 KBS 뉴스 12	1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덕터 365 55 화제기행(재)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15 VJ특공대	20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날씨와 생활
2	00 세계인 동양정신에 길을 묻다 제2편 50 KBS 다큐1 <100세 사회의 경고 4부>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05 내꺼야 플록 30 동물가족 채취기 외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45 세계인 스페셜 55 토크쇼 생활제조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 전망대	00 SBS 뉴스 10 절망과 잘 사는 법 10 시사하트(재)
4 10 레드노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10 자동차부품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내 같은 딸>(재)	0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호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터닝메카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스페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덕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하트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라동물 극장(단편)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내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남도의 보물 100선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20 세상발견 유레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정 우리가	0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11 00 모쿠르다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제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12 10 나는 몸신이다(재)	30 독립영화관 <산티바바라>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욱정 PD요리인류 키친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30년 후엔 시나트라처럼”

이승철, 데뷔 30주년 맞아 12집 발매 '유히열의 스케치북'서 80대 변신도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유히열의 스케치북'에서 이승철(49·사진)은 데뷔 60주년을 맞은 80대로 분장하고 무대에 올라 솔로 데뷔곡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를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시간 가는 줄 잘 몰랐어요. 막상 30년 후의 제 모습을 상상하며 노래하니 만감이 교차했죠. 먼저 간 (신)해철이, 어머니도 떠올랐어요. 30년 후엔 제가 80대인데 그때 제가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티셔츠 입고 노래하고 있을까란 생각도 들었어요.”

‘보컬의 신’, ‘라이브의 황제’로 불리는 이승철이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그는 30주년을 기념한 12집 발매를 앞두고 최근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악감상회에서 열고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 지난 30년은 선물...“슬럼프, 공연서 노래하며 이겨내” = 이승철은 1985년 결성된 부활의 1집(1986)으로 데뷔했다.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부르던 ‘꽃미남’ 이승철의 모습이 새록새록한 음악팬들이 많을 것이다.

1987년 부활 2집 이후 팀을 떠난 그는 1989년까지 윤상·손무현과 그룹 ‘킬프렌드’로 활동했지만 음반을 내진 않았다. 솔로로 나서던 손무현의 권유로 1989년 이승철 1집이 세상에 나왔다.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마지막 나의 모습’,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등 1집의 여러 곡이 큰 사랑을 받았다.

홀로서기의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1990년 2집 이후 대마초 사건에 휘말린 그는 1991~1995년 방송 금지 5년을 겪었다. 또 2002년 15년 만에 부활과 재결합해 ‘네버엔딩 스토리’를 크게 히트시키기도 했다.

이승철은 각별한 곡을 꼽아달란 말에 “인생에 굴곡이 많아 재기곡이 많다. 재기곡은 모두 감사한 노래”라고 웃었다.

“‘희야’는 너무 감사한 노래죠.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는 그룹 출신 보컬이 성공할 수 없다는 징크스를 깨 준 곡이고요. 부활에 다시 들어가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도 감사하죠. 이런 노래들이 와 닿는데 인생의 굴곡을 함께 한 노래들이 많아요.”

“돌란”의 비결은 역시 독보적이고 빼어난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늦게 노화된다고 해요. 때문 선배들의 노래를 들으며 ‘변했구나’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전 목소리를 위한 노력을 좀 해서 목소리가 젊게 들리는 것 같아요.”

30년간 평균 2년 반 만에 1장짜리 앨범을 내며 여느 중견 가수들보다 한층 뜨거운 현역으로 활동한 데 대한 감사함도 크다

그는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지금”이라며 “새 앨범을 내고 기자들과 얘기하는 시간 자체가 큰 보람이자 기쁨이다. 올해 나이가 50세인데 나이까지 노래할 거라, 30주년을 맞을 거로 생각하면 적어 없다.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찾아와준 건 선물이다. 어떤 때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 12집 낸 현재에 감사...사운드·편곡·보컬에 감탄선고 집=12집은 그의 음악적인 고집과 신념의 산물이다. 신인과 기성 작곡가를 가리지 않고 약 200곡을 모아 작곡가 전혜성과 엔지니어들이 50곡을 추렸고 이승철이 그중 편곡 없이 8곡을 골랐다. 그랬던 전혜성·신사동호랭이 등 유명 작곡가와 한수지·김유신·4비타 등 신인의 곡이 5대 5 비율로 섞였다.

머라이어 캐리·마이클 잭슨 등과 작업한 캐나다의 스티브 핫지를 비롯해 영국의 댄 페리, 미국의 토니 마세라티 등 3명의 ‘그레미 어워드’ 수상 믹싱 엔지니어들이 참여했다.

그가 직접 전곡을 편곡한 방향에도 음악적인 뿌리와 보컬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최소한의 밴드 구성으로 악기를 배열하고 리프(Riff·반복 악절)를 살린 편곡 덕에 미니멀한 사운드가 보컬의 출중함을 탄탄히 받쳐준다.

◇ 앞으로 30년에 책임감...“모란봉악단 지휘해보고 싶어” =그는 가수지만 사회적인 행보에도 적극적이다. 아프리카 차드에 학교 짓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지난해 8월 독도에서 탈북 청년합창단을 지휘하며 통일송을 발표했고, 각종 기부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엠넷 ‘슈퍼스타 K’의 심사위원으로 원석 발굴에도 나서는 등 가요계 대선배로서의 책임감도 크다. 그는 자신이 조종필 선배를 바라보듯 후배들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한다고 했다.

“12집을 만들며 앞으로 봄·여름·가을·겨울에 3곡씩 내는 시집 앨범을 내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위에서 ‘이승철인데 정규 앨범 내야지’란 말을 들으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을 느끼죠. 대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후배들이 제 활동에 큰 힘이 될 거란 생각에 쉽게 앨범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답변을 내놓았다.

“짜이처럼 커야죠. 하하. 저도 뮤직비디오 2억 뷰쯤 만들어 봅시다. 11집 곡 ‘마이 러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는 사이에 비하면 아직 새 밭의 피죠.”

EBIS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14:45 미연마이로트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극한직업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큐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타이완 재발견>
07:15 곤(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서해 포구를 가다>
07:30 출동! 슈퍼왕(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현장 사냥의 기술>
07:45 보롱보롱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0 불이더 구조대, 보잉	22:45 다큐 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글로벌 가족 정착기 <한국에 신다>	16:45 콧마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기록물 아틀라스 <세계의 잔치음식>
08:20 두다다(재)	13:40 줄거운 수학 EBS MATH	17:00 WHO-위인극장(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WHO-위인극장	13:50 꼬마 철학자 휴고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08:50 콧마와 친구들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30 보롱보롱 보로로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15 피터 래빗, 보잉(재)	17:45 꼬마버스 타요	
09:20 놀이더 구조대, 보잉(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8:00 생방송 토크! 보나하니	
09:35 이엽! 스페이스 정글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알짜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 I-알짜개념>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수학4-1>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알짜개념>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	07:3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수학4-5>
01:40 <문학-알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	<수학6-1>
02:30 <미적분 II>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03:20 <수학 I>	15:40 <미적분 II>	09:00 줄거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16:30 <수학 I>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40 <수학3(상)>	
04:4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09:50 <수학1(상)>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05:00 뉴탐스런 <물리 I>	18:10 뉴탐스런 <물리 I>	10:30 <역사2>	20:00 EBS 기획특강	
06:00 <생명과학 I>	19:20 <생명과학 I>	11:10 <국어③④>	20:50 EBS 기획시리즈	
06:40 <동아시아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1:50 <수학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7:30 <윤리와 사상>	20:50 2016 인터넷 수능	12:30 실전 취업가이드	22:00 등업신공 <과학2(하)>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1:50 <문학A형>	13:10 등업신공 <수학1(하)>	22:40 <수학3(하)>	
09:10 <심주석의 수학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50 <과학1(하)>	23:00 필독 <사회1>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14:30 <수학2(하)>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11:00 <수학 I>		15:20 만점왕 <수학 3-1>	24:30 백점공략 <과학2(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6일(음 4월 9일 壬寅)

子	48년생 비뚤어지거나 어그러져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60년생 지금 손대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72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될지 모를 일이다. 84년생 오래 동안 쌓여 있어서 부작 용이 예상 된다. 행운의 숫자 : 69, 85	午	42년생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4년생 진퇴가 분명해야만 한다. 66년생 한 눈에 보 아도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78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 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64, 10
丑	49년생 흥이 절로 나는 즐거운 일이 발생하리라. 61년생 머무르 러 하지 말고 나아가자. 73년생 지금은 답답하겠지만 시간이 흐 르 후에야 비로소 개념게 될 것이다. 85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자 기 확신이 필요한 때다. 행운의 숫자 : 06, 33	未	43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55년생 이종생 띠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67년생 대화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의 골짜기 상당하다. 79년생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 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1, 30
寅	38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 생 협조자와 방관자가 함께 하는 일이다. 62년생 가능성이 희 박하니 빨리 선회하자. 74년생 해법을 찾을 수 있다. 86년생 중 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5, 55	申	44년생 밤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을 알라. 56년생 다수의 어중간함 보다는 소수의 확실함이 더 낫다. 68년생 흡족한 결과 로 인해 즐거우리라. 80년생 경험의 참차과 전문성이 옳은 판단 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58, 37
卯	39년생 더 흔들리기 전에 속히 중심을 잡아라. 51년생 강력한 유 혹의 손길이 뻗치리라. 63년생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라. 75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한다. 87년생 힘든 와중에서 더 큰 골 치기거리가 불거진다. 행운의 숫자 : 03, 73	酉	45년생 필연적이나 만큼 각고의 노력을 요한다. 57년생 다수자 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 밖에 없으리라. 69년생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니 묵과해도 된다. 81년생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서 조심스런 행동을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2, 84
辰	40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적이다. 52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이다. 64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 면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76년생 적극적이어야만 해쳐 나갈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1, 28	戌	46년생 세분화 되면서 점점 흥미를 더 하게 되리라. 58년생 상호 간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채널이 절실하다. 70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82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 히 몰입하자. 행운의 숫자 : 67, 47
巳	41년생 나누면 다시 모아질 것이니라. 53년생 달리는 말에 체찍 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65년생 중박 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77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 워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0, 63	亥	47년생 상하로 통떨어져 있으니 좌표를 재조정 하자. 59년생 조 금씩 적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환경이다. 71년생 과감하고 신속 히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83년생 알면서도 말 못하는 답 당 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8,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

‘프로듀사’ PPL 협찬 김수현 효과 ‘톡톡’

(간접광고)

드라마 주연 선호도 33.6% 1위

한류스타 김수현이 출연 중인 KBS 2TV 드라마 ‘프로듀사’가 ‘김수현 효과’ 덕에 간접광고(PPL) 협찬으로 대박을 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시청자들이 드라마 주연으로 선호하는 남자 배우는 김수현(사진)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4월 19일~5월 2일 지상파 3사의 드라마를 즐겨보는 수도권의 13~59세 남녀 3655명을 상대로 드라마 주연배우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이 33.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가 출연 중인 드라마 ‘프로듀사’의 간접광고 협찬이 ‘대박’을 낸 데서도 나타났다.

SBS TV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중국어권 한류스타로 떠오른 그의 차기작인 만큼 회담(12부작) 4억 원이 투입된 총 제작비 48억원 중 이미 20억원 가량을 기업체의 다양한 제작 지원을 통해 메웠다는 말이 나왔다. PPL은 화면 안에 제품이 노출되는 것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이 김수현이 입고 먹고 빠르게 해달라며 제작 지원을 하겠다고 몰려든 것이다. 이미 드라마 방송 전부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소후(搜狐닷컴)에

팬권이 판매되고 초반 1~4회의 광고가 완판되며 ‘김수현 효과’의 위력은 나타났다. 방송이 되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시청률이 고전하는 금요일 밤 시간대에 바로 10%대를 찍었다.

화제의 드라마인 만큼 OST 앨범에도 이승철, 백지영, 김범수, 김연우, 알리 등 ‘OST 강자’들이 대거 참여해 ‘화하 라인업’으로 주목받았다. 한 가요 관계자는 “김수현 씨가 중국에서 대표적인 한류 스타인 만큼 ‘프로듀사’가 중국에서 방송되면 OST가 전파를 탈 테니 그 특수성을 기대하는 가수가 많다”고 말했다.



유승준, 다시 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

오늘 출입국관리소에 공문 발송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39)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지 타진한다. 유승준 측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6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 공문을 발송한다”며 “법무부 관계자가 공문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라고 해 이날 보낸 예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적 회복이 가능한지 등 절차에 대해 문의할 것”이라며 인터뷰가 성사된다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19일 밤 홍콩에서 아프리카TV 생중계를 통해 무릎 꿇고 흐느끼며 과거 병역 기피 논란과 관련해 사죄했다.

그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가겠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군대를 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에도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난 21일에는 유승준이 미국 세법 개정과 함께 중국에서 번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내는 걸 피하려는 의도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짜리시’(정보지)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선을 그은 뒤 대중 앞에 나선 만큼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